

음식과 요리는 허기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과학이자 고유의 문화, 행복주는 예술이다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이강민 지음

일반적으로 ‘요리를 한다’고 말하면 열을 가해 익히고, 식재료를 다듬고, 버무리는 행위를 말한다. 쉬워 보이는 요리의 과정에는 사실 체계적이고 신기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 즉 주방에서 하는 모든 요리행위는 과학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계에서 이색적인 소유자로 알려진 이강민 박사는 별난 과학자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고, 저녁이면 음식에 과학과 예술을 입히는 실험적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그가 이번에 펴낸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효소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지식을 요리와 음식에 대입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요리를 단순히 맛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분자 수준에서 해체하고 분석하고 재조합한다.

예를 들어 이렇다. 음식을 가열하는 것

을 ‘식재료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먹기 좋고 소화하기 쉬우면서 깨끗한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한다.

한편으로 ‘소금으로 식재료를 절이고, 식초를 넣어 산도를 조절하고, 양념을 넣어 확산시키고, 소스에 밀가루를 넣어 젤화시키는 것은 물리적 변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책에는 과학자의 눈과 요리사의 눈으로 직접 연구하고 경험해온 것들이 맛깔나게 버무려져 있다. 또한 왜 빵을 만들 때와 부침개를 만들 때 쓰이는 전분이 다르지, 탄수화물은 왜 단맛을 지니는지, 프라이팬은 왜 여러 종류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등이 소개돼 있다.

이밖에도 책에는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변화하는 요리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여겨지던 과학의 진미가 인문적 온기를 품은 글과 만나 풍성한 과학이라는 식탁이 차려진다.

저자에게 음식과 요리는 허기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과학이자, 고유의 문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예술이다. 과학에서 시작된 호기심과 애정이 요리라는 특정한 분야와 만나 색다른 융합의 묘미가 발현된다.

〈더숲·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해방의 정치는 사건으로부터 태어난다



정치는 사유될 수 있는가

알랭 바디우 지음

촛불 집회 누적 참가자 1600만 명,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최장 시간 검찰 조사 등 일련의 사건은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하는 계기였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영역에서 행해지던 ‘정치’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삶과 의지와는 유리된 측면이 많았다. 그곳에는 정치가 없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현은 정치권의 바깥에서 ‘정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유럽대학원 르네 데카르트 석좌 교수인 알랭 바디우의 책 ‘정치는 사유될 수 있는

가’는 시민의 정치이자 해방의 정치에 초점을 맞춘다. 선거와 의회주의로 상징되는 “재현의 정치”가 아니라, 그 “재현의 정치”에 구멍을 내는 “사건의 정치”다. 즉 “서구의 자본주의적 체제들”의 우월성만을 증명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넘어, 실천이라는 표지 아래서 정치 개념을 내놓는다.

이전에는 상황 안에 갇혀 있던 진리가 ‘개입’과 함께 사건의 형상 속에서 순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동일시해 버리는 ‘하나로 셈하기’라는 지배적 정치 질서에 균열을 내는 개입이 공백을 만들어 내고 사건의 진리를 만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정치는 재현이 아니라 주체들의 개입을 통해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작금의 우리의 상황을 빗댄다면 국회와 국가기구가 독점하는 재현의 정치가 아닌, 사건의 정치 즉 광장의 정치에서 진리가 생산된다는 뜻인 터이다.

〈길·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야단법석2

법륜 지음



“제일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기도 하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긍정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이렇게 늘 재수가 좋은 거예요.”(본문 중에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은 현실의 어려움과 의문을 명쾌한 해답으로 풀어내는 이야기 강연이다. 그날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이 그날 강연의 핵심 소재다.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질문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더러는 스님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날 만큼 따끔한 야단을 맞기도 한다. 법륜스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연을 진행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륜스님의 대중 강연은 2011년 100회, 2012년 300회, 2013년 100회, 2014년 세계 115회 등 1000회를 넘었다.

악마적 요소를 전복적이면서 유쾌하게 그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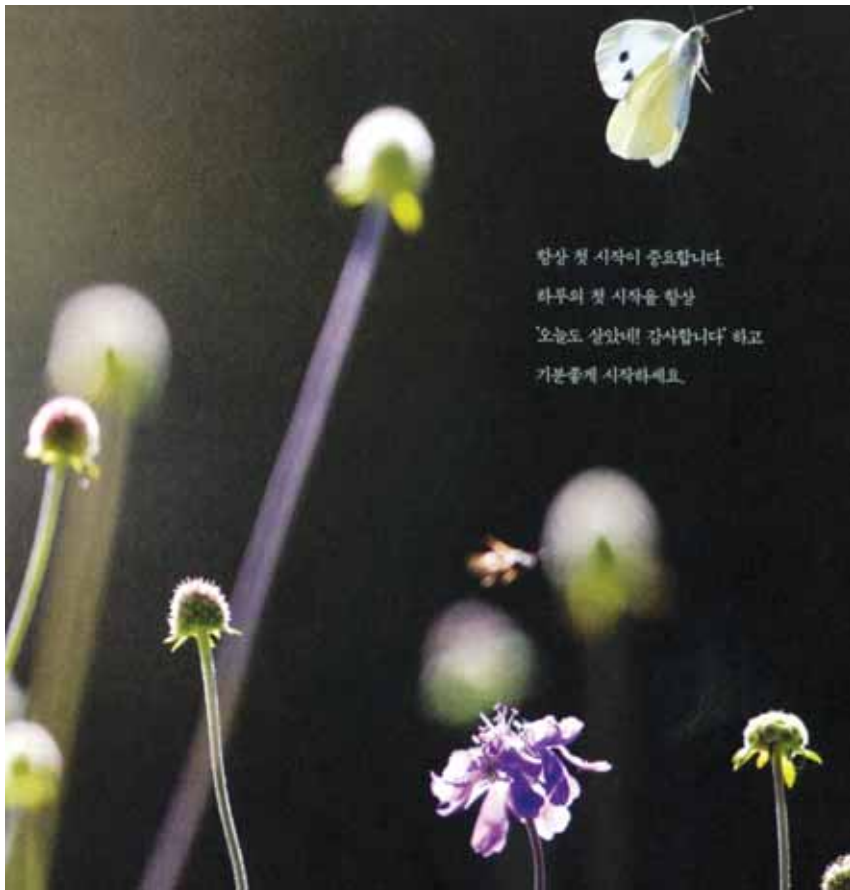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박하령 지음

“악마에 대한 참신하고 흥미로운 발상! 악마적 요소를 전복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던 제10회 블루픽션상 수상작 박하령의 장편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가 출간됐다.

비룡소 블루픽션상은 지금까지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로 청소년 문학의 스펙트럼을 넓혀온 작품들을 선보였



강연이 펼쳐진 장소 또한 다양하다. 구청과 시청 강당, 지역 공연장, 교회, 성당, 공원 등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않았다. 또한 강연장에 참석하는 연령과 계층도 사연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20대 청춘부터 70대 노인, 그리고 주부에서부터 직장인,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의 직업도 다양했다.

이번에 출간된 ‘야단법석2’는 2015년 한해 동안 많은 이들과 나눈 대화록이다. ‘야단법석1’이 2014년 세계 115개 도

시를 돌며 진행한 강연을 기록한 책인데 반해, 이번 2권은 대체로 ‘행복’을 소재로 한 대화를 엮은 것이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스님은 ‘행복’을 ‘마음의 봄’으로 규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얼굴이 검은 희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현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했든,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

내가 아는 역사와 과학이 과연 진실일까



지적 호기심을 위한 미스터리

맹성렬 지음

“내가 아는 역사와 과학이 과연 진실일까?”

다윈의 법칙을 거스르는 나뭇잎벌레에서 양자역학이 파헤친 초심리 현상, 텔레파시까지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여는 미스터리 컬렉션.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된 공학자이자 냉철한 과학자 맹성렬 교수가 쓴 ‘지적 호기심을 위한 미스터리

리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단법석일까. 그것은 법당에 마련된 법상에서 거룩하게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자리를 펼쳐 누구나 와서 편하게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스님 강연의 특징은 무엇보다 유쾌한 데 있다. 에두르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들어간다. 내 문제이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쉽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을 밝게 드러내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촉이 따뜻한 시선과 유머로 싸여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 청년이 질문을 했다. “지금 스님아 흠 살인데 결혼 전에 더 많은 여자 친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성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스님의 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 저절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의 관심은 골치 아파지는 관심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놀아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대화체 전개가 술술 익히고 무엇보다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을 꼼꼼히 맞춰져 있다.

“나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며 행복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행복입니다.” 〈정도출판·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 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꿈나무 지원

화순CC | JNJ | 영광CC | 아크로 |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 디오션 | 함평엘리체 | 제주 |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투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충주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제 옥상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 겨울철: 3~5℃ ↑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런트 이영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단계

Step 1 바탕정리
Step 2 단열방수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지 선택가능. 그에서 만나다.

한국방수시험연구원 제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시뮬을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캡처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네티디자인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들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